

트럼프 대통령, 이란 후계구도 개입의지 노골화

“하메네이 차남 용납불가” 선언...사실상 개입시작 쿠르드족 개입 “찬성”...美지상군 역할 대행 등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반미 성향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 이란의 차기 리더십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지난달 28일 사망한 아이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후계자 결정을 위한 이란 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해 축출한 뒤 마두로 정권의 2인자였던 펠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임시 대통령을 맡게 한 사례를 거론하며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란에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미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베네수엘라에서 펠시와 했던 것처럼 그 임명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세울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하메네이의 아들들은 경량급”이라고 평가한 뒤 “하메네이의 아들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란에 조화와 평화를 가져올 사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이란 국민 및 정권과 협력해 핵무기 없이 이란을 훌륭하게 건설할 인물이 그 자리에 오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후계구도 개입을 거론하며 베네수엘라 모델을 언급한 것은 정권의 전면적 붕괴와 대체 세력의 권력 장악에 따른 수 있는 이란 및 중동내 혼란이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 출구전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고강도 대이란 군사작전을 통해 하메네이 신정체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었던 군부를 최대한 약화시키는 한편, 정권 내부의 대미 유화적 인물을 후임 최고지도자로 내세워 친미적 과도 정권으로의 연착륙을 꾀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이란의 시민들에게 ‘군사작전이 끝나면 이란 정부를 접수하라’며 불기를 요구했던 것과는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후계구도 개입’ 구상이 추진되려면 이번 군사작전의 완전한 성공과 그에 따른 이란 정권 잔존 세력의 ‘항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란 정권이 후임 최고지도자 선



미국의 이란 공습 및 최고 지도자 피살 이후 이란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모인 가운데, 한 여성이 지도자인 아이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아이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사진을 들고 있다.

정후 끈질긴 저항을 이어가며 항복하지 않고 버틸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상군 투입과 병행한 장기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자신의 ‘후계 개입’ 구상을 실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찬성(all for it)할 것”이라고 이날 로이터 통

신 인터뷰에서 밝힌 대목이다. 이라크내 쿠르드족 민병대원들이 이란 상군 투입과 병행한 장기전 각오를 하지 않지만 이란으로의 진입을 준비중이라는 보도 등이 전날 나왔던 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의 개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수천명 단위 쿠르드족 병력으로는 이란의 정규군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연합뉴스

걸프 산유국, 해외투자 지출 전면 재검토 에너지·항공·관광업 마비에 재정 악화

중동전쟁으로 재정에 충격을 받은 걸프 산유국들이 해외투자를 비롯한 지출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걸프국의 한 당국자는 외국 정부나 기업에 대한 투자 약속부터 스포츠 후원, 기업들과의 계약, 보유자산 매각까지 모든 활동에 영향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4대 걸프국 가운데 3국이 전쟁으로 빠듯해진 예산과 경제 충격을 합동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논의에서 빠진 한 국가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해당 걸프국들은 현재 이행 중인 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할 수 있을지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항력 조항은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통제불능 이벤트가 터지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행을 미뤄주는 장치다.

이들은 전쟁과 관련한 비용이 지금

처럼 유지될 경우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향후 이행할 투자 약속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걸프국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원인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재정 불균형이 닦친 데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기반 시설을 공격함에 따라 걸프국들은 에너지 산업, 관광업, 항공업으로 벌던 수입이 급감했다.

반면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 공습을 방어하고 시설을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국방비 등 지출은 급증했다.

카타르는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이 드론 피격 후 생산을 중단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유 정제시설이 공습받았다.

이란은 걸프국 내에 있는 미국 군기지나 대사관뿐만 아니라 공항, 호텔, 주거용 건물까지 때려 산업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걸프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촉구가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